



제1회 하천문학상  
[일반부-우수상(수필)]

## 因緣, 온천천

전정욱 작

서울에서 고시 공부로 하루를 꾸역꾸역 채워나가고 있던 나에게 고향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 녀석에게 반가운 전화가 왔다. 서울과 부산 사이가 먼 거리였지만 전화 넘어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흥분이 생겼다.

“내가 방금 온천천에서 운동하다 수달 봤다.”

수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도심의 하천인 온천천에 무슨 일이며 그것이 친구가 그렇게 즐거워 한답음에 나에게 전화 할만한 일인가?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친구의 이야기에 그가 왜 나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모르겠나? 무슨 말인지. 수달이 먹고 살 물고기가 있어야 온천천에 살 수 있단 이야기?”

온천천의 물고기, 이 이야기에 나는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십여 년 전 추억에 빠져들었다.

내가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복개되어있던 온천천을 다시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온천천에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에 동원되었던 우리들은 그동안 써어 있던 냄새나는 물에서 정제도 분간 어려운 것들을 집어내며 투덜거렸다. 그런데 그 투덜거림이 시간이 늘어나면서도 온천천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폐타이어가 뒹굴던 자리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들쭉한 바위가 자리를 메웠고 밝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던 온천천 주변 검은 진흙에는 귀여운 팬지꽃들이 웅기종기 심어졌다. 변화들은 일순간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풀과 들꽃들로 인해 복개된 채 수십 년 세월동안 온천천이 잊고 있던 푸름을 되찾아 주었다.

양 편으로 이어진 도로에 빗꽃이 피기 시작하는 초봄에는 밤낮을 잊고 꽃맛이를 나온 사람들로 인해 온천천은 어느새 인근 주민들에게 함께 숨 쉬는 무릉도원이 되어갔다. 모두들 온천천변을 뛰거나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다 조금 지치면 잠시 서서 물줄기 끝부터 조금씩 물드는 저녁노을을 보며 감상에 젖거나 밤하늘에 뜬 별들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붙여 나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여드름이 얼굴에 가득한 사춘기를 맞이하였다. 온천천 인근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는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 온천천을 걸으면서 언제가 다가올 나의 첫사랑에 대한 생각에 가슴 설레곤 했다. 그러다 첫사랑은 봄날 온천천을 밧나게 하는 꽃들처럼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마음을 고민하다 편지에 담아 그녀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에게 그녀가 답장을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편지 속에는

“온천천에 물고기가 사는 날, 너와 만나 줄게.”

‘만나 줄게’라는 긍정에 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좌절했다. ‘온천천에 물고기가 사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온천천에는 정작 하천의 주인인 물 속 생물들은 거의 살지 않았다. 그동안 주인이 비운 집을 사람들만 즐거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온천천의 주인을 기다리며 그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답답함에 놓여있었다. 그때 지금 전화 속의 친구가 축

쳐진 내 어깨를 끈게 세우며

“그럼 물고기를 온천천에 우리가 키우면 될까 아니까.”

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 주었다.

친구와 나는 인근 산으로 계곡으로 휴일에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유리병에 담아 두었다 온천천에 놓아 주었다. 마치 그 작은 송사리들이 모여 나와 그녀 사이에 오작교를 놓아 줄 것 같은 희망도 느꼈다. 하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우연도 필요했다. 길게 이어진 온천천에서 우리가 놓아준 물고기들은 너무 작았으며 설사 있더라도 내가 그녀를 불러낸 그 시간에 그녀의 발밑 앞에 은빛 지느러미를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여야 했다. 결국 나와 친구는 운명을 만들기로 했다. 동네 식당에서 구해온 민물메기를 친구가 나와 그녀의 만남에 맞춰 풀어 주기로 한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온천천 물속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키려한 그때, 그동안 어느 식당 수족관에 갇혀 있던 메기 한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가두던 틀을 벗어나 넓은 자연 속으로 헤엄쳐 나갔다. 메기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그녀는 나와 그녀의 만남을 수락을 했고 우리 역시 알 수 없는 시간의 긴 강물을 따라 만남을 시작했다.

나는 두해를 그녀와 만나며 종종 온천천을 거닐었다. 그녀와 함께 한 첫 겨울에는 부산에 드물게 함박눈이 내렸고 하얗게 눈이 내려갈린 온천천에 우리들은 서로를 닮은 눈사

람을 만들기도 했다. 이윽고 그 눈이 녹는 따듯한 봄이 되면 온천천 강변에는 눈송이를 대신하여 하얀 벚꽃들이 피어났고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수면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재수를 하면서 꿈을 찾아 서울로 진학한 그녀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 내가 일년 후 서울에 왔을 때 그녀를 몇 번 만났지만 이미 우리 둘 사이에는 교복을 입고 온천천을 거닐며 나누던 애뜻함은 사라져 있었다. 내 마음 속에는 아직 온천천의 풍경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오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내 마음 속에도 온천천의 풍경이 서서히 잊히고 있지 않았던가?

친구의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아 생각해 보았다. 그때 내가 놓아주었던 물고기들이 새끼를 놓고 그 새끼들은 다시 어미를 닮아가 온천천 바닥을 헤엄치고, 그리고 사라졌던 수달이 돌아와 수풀사이로 뛰어온다. 어찌면 그 속에 예전에 나와 그녀와 같이 서로의 꿈을 나누는 여인들이 거닐고 있을 것이다.

추석에 집에 가면 온천천을 오래만에 나가봐야겠다. 그 때쯤이면 무르익은 가을이 수면이로 찬란히 타오르고 있을 테니까. 🍂



제1회 하천문학상  
[중고등부-우수상(시)]

# 달아나더라 닦고 싶어라

이경민作

한 조각만 잡으려, 잡으려 해도  
움직임직 거리며 스리슬쩍  
제 손만 빼고 달아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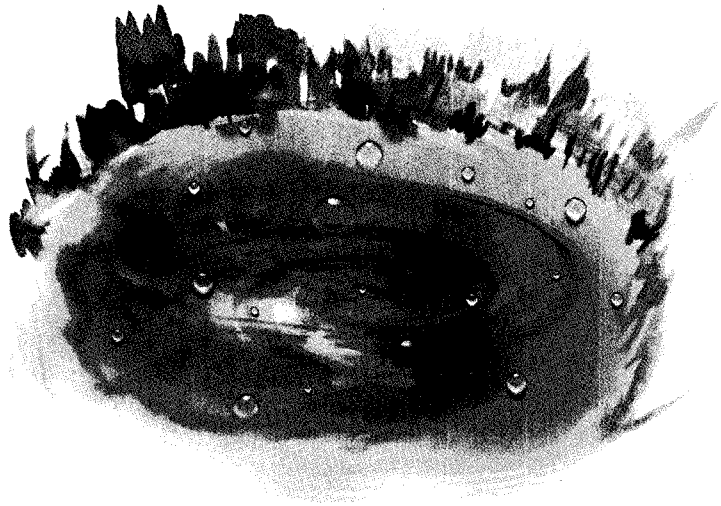
조금만 들여다 볼랍시고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새  
잔상만 남기고  
제 모습은 달아나더라.

어찌 그러누, 어찌 그러누.  
쥐장난을 부리누.  
그 원망도 잠시.

돋을별이 떠오를 때도,  
땅거미가 내려올 때도,  
설렁설렁 제 갈길 그리며 가는  
강물 한 자락을 닦고 싶어라

갑작바람 불어올 적에도,  
고추바람 불어갈 적에도,  
울렁울렁 쉬이 흘러만 가는  
강물 한 줄기를 닦고 싶어라

설피지도 않고,  
강짜를 부리지도 아니하는,  
곰살 은심보의  
바로 그 물꼬리를 닦아 가고 싶어라



제1회 하천문학상  
[초등부-우수상(시)]

# 시민의 강

장세린 작

고개 숙여 노래 부르는  
키다리 갈대 아가씨의 수줍은 몸짓을 보았어요.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번덕쟁이 소금쟁이 아저씨의 스케이트 썰씨도 보았고요.

하늘이 눌러 내려와 구름을 홀로 두고 떠난 자리에  
'빠끔빠끔' 잉어친구들이  
햇살을 먹습니다.

아이들의 풀파리 소리에  
낮잠 자던 고추잠자리 나풀나풀  
여름 인사를 하고

바람은 구름을 타고  
구름은 바람을 타고

여기는  
우리 동네  
시민의 강입니다.

